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and Abuse on the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박기원(Ki-Won Park)¹⁾

ABSTRACT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abuse on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ts were examined using a sample of 2,163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1,096 boys and 1,067 girls) from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CYPS) data set. All research variables were measur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y were analyzed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s' abuse had no direct effect, but there was an indirect effe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Parental neglect had a direct effe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also had an indirect effe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social withdrawal. The results indicate that parental neglect is a more significant contributor than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parenting attitude, more specifically parental neglect, tend to be more important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compared to adolescents' psychological problems, such as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s aimed at improving parental neglect and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need to be emphasized if adolescents are to better adjust to school life.

¹⁾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Ki-Won Park, of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Banpo 4-dong, Seocho-gu, Seoul 140-766, Korea
E-mail : kiwonpark63@gmail.com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부모 학대(parent abuse), 부모 방임(parent neglect),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

I. 서론

최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대안교육시설 및 청소년지원 기관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1,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기관에서 생활하는 초, 중, 고교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정규 학교를 자퇴하고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청소년 지원기관은 고교 1학년까지 정규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고, 대안교육시설은 가장 높은 비율인 40.4%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정규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3). 특히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중, 고교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3).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ae & Lim, 2013; Keum, Son, Chae, & Kang, 2013; Kim, 2009; Seo, Cho, Chang, & Lee, 2012),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생활은 청소년의 하루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청소년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회질서 및 문화를 체득하며, 대인관계능력, 사회성 등을 기른다(Kim, 2009; Seo et al., 2012). 따라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그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접하게 될 사

회에서의 적응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09).

이렇듯 청소년의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의 현재 및 이후 성인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주요 변인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며 연구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듯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국내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Keum et al., 2013; Kim, 2009; Seo et al., 2012),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부모학력 등 부모관련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Keum et al., 2013; Kim, 2009; Seo et al., 2012). 이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접하는 1차적 사회화기관이 부모의 관리 및 책임이 있는 가정이므로, 이러한 가정이 2차적 사회화기관인 학교생활의 적응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요인 중에서도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그 하위 요인의 하나로서 부모의 방임 및 학대를 들 수 있다. 부모의 방임이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충분히 발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적인 양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학대와 달리 기본적인 처벌이나 훈계조차 제공하지 않고, 신체, 정서, 지적 발달 등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무관심하고, 지지

등이 부재한 것을 말한다(Kim, 2003; Huh, 2000). 부모의 학대는 자녀가 사소한 잘못을 했거나,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의도적이고 과도한 처벌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남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Kim, 2003; Huh, 2000). 그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자녀에게 최소한의 양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해를 가함으로써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며, 이는 자녀로 하여금 학교와 같이 가정을 벗어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Kim & Yeum, 201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요인 외에도 청소년의 자아정체감(Lee & Cheon, 2008), 자아탄력성(Sung, Park, & Kim, 2013) 등 개인적 요인(Park & Yoo, 2013)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개인적 요인 중에서 학교 등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응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이란,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접했을 때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나타내어 사회적 또는 정서상의 발달지체를 보이고, 이로 인해 이후의 개인의 삶과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Rubin & Burgess, 2001; Rubin, Coplan, & Bowker, 2009; Rubin, Stewart, & Coplan, 1995).

Rubin과 Coplan(2004)은 그의 선행연구에서 Piaget, Mead, Sullivan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해 왔음을 언급하였으며, 교우관계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음에도 불구하고(Kim, 2009), 1970년대까지도 새로운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사회적 위축 또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등이 또래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이나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연구주제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Rubin & Coplan, 2004).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외현화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내면화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내면화 문제의 하나인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Rubin & Coplan, 2004). 또한 사회적 위축은 그 특성이 매우 안정적이고(Rubin et al., 1995),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과 함께 부정적인 발달궤적을 나타내므로(Rubin & Coplan, 2004),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조기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잠재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Keum et al., 2013; Kim, 2009; Kim & Yeum, 2012; Park, Chung, & Shin, 2013)에 따르면,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며, 이는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높을수록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학대의 하위차원인 정서 학대는 학업성취,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Yeum, 2012). 이와 비슷하게, 부모의 방임은 학업성취, 학교규범, 교사관계,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임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부모가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 학교생활적응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Yeum, 2012).

다음으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의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Kim, 2012)에 의하면,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 간의 관계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방임과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적 위축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사회적 위축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Keum et al, 2013; Lee & Lee, 2013; Rubin et al, 2009)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학교생활적응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교사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낮은 학업 성취, 학교 회피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상황이나 사람, 그리고 사회적 상황 및 관계 등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회적 위축의 특성을 가진 청소년이 학교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위축 변인은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관련이 있고, 또한 학교생활적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위축 변인이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방임 및 학

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 및 학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1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는 2009년 4월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2009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시행하여 선정된 표본으로, 1차년도 조사결과에서 최종 표본으로 선정·구축된 2,351명의 청소년 및 보호자를 2차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있고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2,163명이다.

2. 연구도구

1) 부모방임

부모방임 척도는 Huh(2000)와 Kim(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제작한 것으로, 중1패널 2차년도 질문지 중 총 4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부모방임’에 해당하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등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방임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부모방임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부터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부모방임 .765로 나타났다.

2) 부모학대

부모학대 척도 또한 부모방임 척도와 동일하게 Huh(2000)와 Kim(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중1패널 2차년도 질문지 중 총 4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부모학대’에 해당하는 문항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역)’,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역)’ 등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부모학대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부터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부모학대 .848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 척도는 Kim과 Kim(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중1패널 2차년도 질문지 중 총 5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역)’,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역)’ 등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음을 나타낸다.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부터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사회적 위축 .846으로 나타났다.

4)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Jeong(1991)이 사용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하위척도 중 ‘교우관계’는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가 .6미만(교우관계 .565)으로 허용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Kline,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하위척도로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였다. 중1패널 2차년도 질문지 중 총 15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하위척도들은 각각 5문항의 총점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학습활동’ 문항은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학교규칙’ 문항은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역)’, ‘교우관계’ 문항은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교사관계’ 문항은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역)’ 등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나타낸다.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부터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학습활동 .696, 학교규칙 .789, 교사관계 .836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SPSS Program 20.0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AMOS Program 20.0을 이용하여 부모방임 및 학대와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는 사회적 위축에 관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잠재변인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사회적 위축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랩 분석(bootstra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1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 50.7%(1,096명), 여학생 49.3%(1,067명)이었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39.1%(84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이 38.1%(824명)이었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졸이 51.2%(1,10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이 29.1%(629명)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16.2%(35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5%(293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1.9%(257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1.8%(25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어머니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6.6%(359명)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 13.1%(283명), 사무종사자 10.4%(226명), 판매종사자 10.2%(22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간 가구 소득은 3,000만원이 11.2%(243명), 5,000만원이 11.2%(24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00만원 10.5%(228명), 6,000만원 8.4%(181명), 3,500만원 5.0%(109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2.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분포의 정규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왜도 < 2, 첨도 < 7)(Curran, West, & Finch, 1996)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방임 변인은 하위영역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r = .34 \sim .58$)이 나타났고, 부모방임 하위영역과 부모학대 하위영역들 간에도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 = .09 \sim .17$)이 나타났다. 부모방임 하위영역과 사회적 위축 하위영역과도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 = .04 \sim .13$)이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과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r = -.06 \sim -.26$)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normalities of variables (N = 2,163)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M	SD	Skewness	Kurtosis
Parent neglect	Neglect 1	2.03	.887	.701	-.116
	Neglect 2	1.91	.739	.563	.166
	Neglect 3	1.79	.714	.732	.585
	Neglect 4	1.71	.694	.832	.859
Parent abuse	Abuse 1	2.27	.869	.331	-.518
	Abuse 2	1.72	.831	1.02	.418
	Abuse 3	1.64	.843	1.20	.643
	Abuse 4	1.73	.907	1.01	-.023
Social withdrawal	Withdrawal 1	2.11	.916	.339	-.827
	Withdrawal 2	2.33	.912	.029	-.884
	Withdrawal 3	2.13	.879	.286	-.738
	Withdrawal 4	2.17	.895	.246	-.797
	Withdrawal 5	2.44	.862	-.063	-.682
School adjustment	Learning activity	13.71	2.58	-.248	.471
	School regulation	13.00	2.80	-.122	.642
	Teacher relation	14.04	3.29	-.152	-.102

이 나타났다.

부모학대 변인은 하위영역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r = .43 \sim .72$)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 하위영역들과도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 = .04 \sim .10$)이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r = -.05 \sim -.11$)이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변인은 하위영역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r = .40 \sim .73$)이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들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r = -.05 \sim -.17$)이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변인은 하위영역들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r = .43 \sim .50$)이 나타났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방임 및 학대, 사회적 위축, 학교생활적응 변인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므로, 이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결과

본 연구는 부모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는 TLI = .953, CFI = .961, RMSEA = .045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본 연구모형은 Hu와 Bentler(1999)가 권장하는 지수와 해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 = 2,163)

	Neglect 1	Neglect 2	Neglect 3	Neglect 4	Abuse 1	Abuse 2	Abuse 3	Abuse 4	With-drawal 1	With-drawal 2	With-drawal 3	With-drawal 4	With-drawal 5	Learning activities	School regulation
Neglect 2	.41**														
Neglect 3	.36**	.58**													
Neglect 4	.34**	.52**	.58**												
Abuse 1	-.09**	-.01	-.04	-.01											
Abuse 2	.00	.10**	.11**	.16**	.53**										
Abuse 3	.02	.08**	.12**	.16**	.49**	.72**									
Abuse 4	.02	.10**	.10**	.17**	.43**	.66**	.69**								
With-drawal 1	.07**	.13**	.11**	.13**	.08**	.10**	.09**	.09**							
With-drawal 2	.02	.04*	.03	.04	.06**	.03	.03	.03	.58**						
With-drawal 3	.07**	.13**	.08**	.13**	.06**	.07**	.06**	.05*	.56**	.57**					
With-drawal 4	.03	.07**	.06**	.06**	.04	.04*	.03	.03	.54**	.73**	.62**				
With-drawal 5	.04*	.09**	.07**	.08**	.03	.01	.02	-.01	.40**	.42**	.43**	.40*			
Learning activities	-.13**	-.26**	-.22**	-.25**	-.07**	-.10**	-.11**	-.10**	-.14**	-.11**	-.16**	-.12**	-.15**		
School regulation	-.07**	-.19**	-.17**	-.18**	-.01	-.05*	-.03	-.03	-.04	-.02	-.05*	-.02	-.02	.50**	
Teacher relation	-.06**	-.20**	-.18**	-.21**	.03	-.01	.02	-.00	-.11**	-.08**	-.11**	-.09**	-.17**	.43**	.46**

* $p < .05$. ** $p < .01$.

<Table 3> Fit index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N = 2,163)

χ^2	df	p	TLI	CFI	RMSEA
616.683	113	.000	.956	.964	.046

5. 연구모형 모수치 추정결과

본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모방임 및 학대, 사회적 위축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경로계수 추정 및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였고, 부모방임 및 학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분석(bootstrap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1과 Table 4에 제시하였

<Table 4> Illustration of bootstrap method for mediation (N = 2,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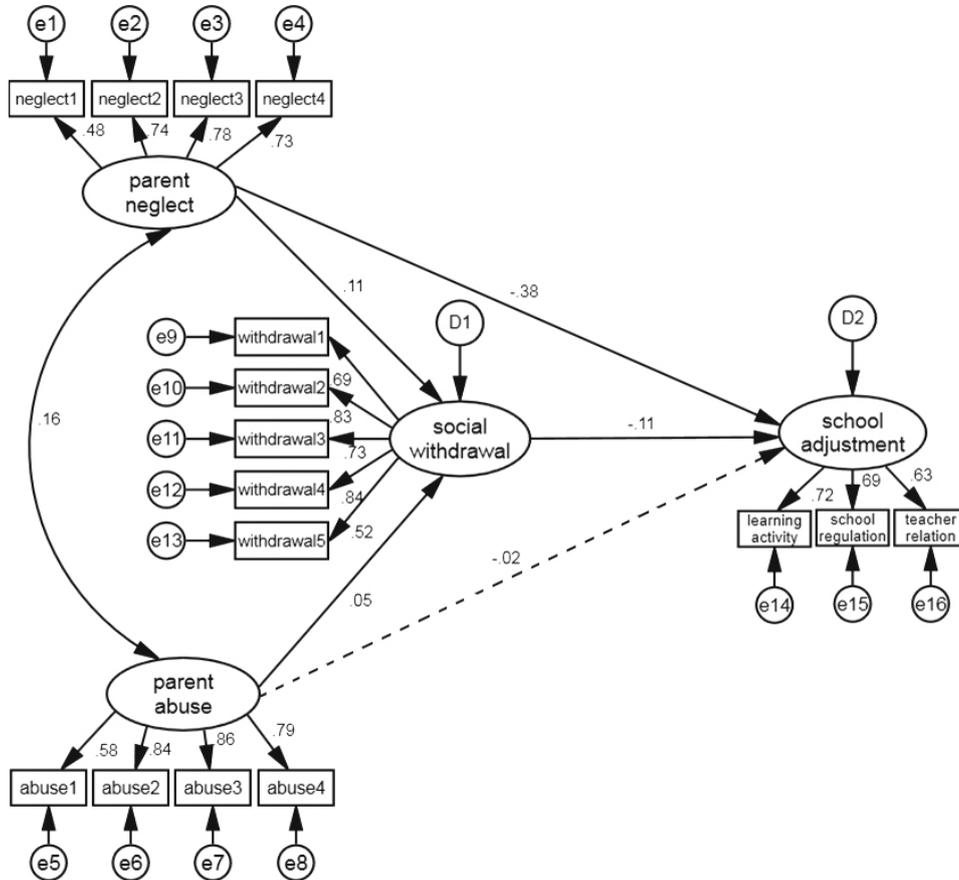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95% CI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Bias-corrected
Parent neglect → School adjustment	-1.647	.192					(-2.03 ~ -1.28)
Parent neglect → Social withdrawal	.121	.033					(.06 ~ .19)
Parent abuse → School adjustment	-.042	.077					(-.21 ~ .10)
Parent abuse → Social withdrawal	.033	.017					(.003 ~ .068)
Social withdrawal → School adjustment	-.468	.130					(-.698 ~ -.202)
Parent neglect → Social withdrawal → School adjustment			-.057	.021			(-.11 ~ -.02)
Parent abuse → Social withdrawal → School adjustment			-.016	.009			(-.04 ~ -.001)
Parent neglect → School adjustment					-1.704	.196	(-2.86 ~ -1.33)
Parent abuse → School adjustment					-.058	.078	(-.224 ~ .09)

Note. Estimates are unstandardized.

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beta = -.38, p < .001$)에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방임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방임은 사회적 위축($\beta = .11, p < .001$)에,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beta = -.11,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학

대는 사회적 위축($\beta = .05, p < .05$)에,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beta = -.11,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정도는 높았으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비교한 결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방임($\beta = -.38, p < .00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위축($\beta = -.11, p < .001$)이었고, 부모학대는 유의한 영향



* $p < .05$. ** $p < .01$. *** $p < .001$.

Note. The dotted line is a non-significant path. Estimates are standardized.

〈Figure 1〉 Verification on the theoretical model of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위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방임 변인($\beta = .11$, $p < .001$)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학대 변인($\beta = .05$, $p < .05$)이었다.

둘째,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이 $-.11 \sim -.02$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rout & Bolger, 2002). 즉 부모방임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

적 상황에서 위축하게 하며,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이 $-.04 \sim -.001$ 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rout & Bolger, 2002). 즉 부모가 청소년인 자녀를 학대할수록 청소년은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야기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KYPI)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2차년도(2010)』의 참여자 중 부모가 있고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청소년 2,163명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방임 및 학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학교생활적응 변인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변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변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탐색한 결과를 연구문제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방임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의 결과(Keum et al, 2013; Kim, 2009; Kim & Yeum, 2012; Park et al., 2013)와 일치한다. 즉,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방임보다는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발달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우선, 학대는 방임과 달리 타인이나 외부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학대 상황을 중단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졌거나, 타인이나 가족 중 부모 이외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로 고위험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적

응력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요인을 대체로 자아탄력성, 내적통제감, 영성 등의 개인적 요인(Lee & Kwon, 2007; Werner, 1989; Yoo & Shim, 2002), 부모를 대신하여 반응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조부모 등의 가족 요인(Werner, 1989), 교사나, 선배, 성직자 등의 외부적 지지체계(Werner, 1989)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Lee와 Kwon(2007)도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학업 등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학대의 경우 종교성(religiosity) 등의 요인이나 가족 기능(family process) 등 부모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통해 학대의 부정적 영향이 조절되어 적응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음을 알아내었으며, 또한 연령에 따라 부모 학대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와 달리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신체적 학대를 훈육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였다(Lee & Kwon, 2007). 본 연구 역시 중학교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한 점에서, 초등학생들보다는 신체적 학대를 훈육방식의 하나로 본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이라는 매개변인을 설정하여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인 사이를 조절하는 제3변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부모 학대에 관한 연구 수행시, 연령에 따른 부모 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의 차이를 고려할 필

요성이 있다.

둘째,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사회적 상황에 대해 위축하게 되며,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위축적인 태도로 반응하면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의 부적응을 높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가 방임적 또는 학대적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일으킨다는 선행연구 결과(Keum et al., 2013)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위축은 양육자나 교육자로부터 잘 탐색되지 않고(Rubin et al., 1995), 시간이나 상황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Rubin et al., 2009),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의 질 등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 가지고 있으므로(Hane, Cheah, Rubin, & Fox, 2008; Oh et al., 2008; Rubin & Burgess, 2001; Rubin et al., 2009),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방임 및 학대적 양육태도를 교정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나 지역적, 사회적 관심 및 지원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로 다른 잠재변인의 측정변수 간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상관계수 절대값의 크기가 .10 미만인 경우도 나타났다. 이는 연구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두 잠재변인 간에 인과관계가 분명하더라도 변인 간 측정시기가 너무 짧거나, 반대로 측정간격이 너무 길어서 상관계수의 크기가 작게 나타날 수도

있다(Kline, 2005).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본 변인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설계하여 연구를 실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방임 및 학대로 제한하였으나,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모 양육태도 하위차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아동기 때보다 더욱 중요한 반면, 사회적 위축은 그 특성상 안정성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정적 발달궤적을 보임으로써 조기개입이 필요성을 시사하므로 고등학생보다 낮은 연령인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보다 이른 연령인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태도 변인을 탐색하여, 사회적 위축 문제가 후기 아동기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 및 사전 예방 시기를 보다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Nelson, Rubin과 Fox(2001)가 수행한 종단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에 성차가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의 성별 차이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이후 성인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

과장은 더욱 크며, 이러한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칫 청소년의 생애에 영구적 문제를 남길 수 있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와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의 하나인 부모양육변인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서도 사회적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이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e, Y. J., & Lim, J. Y. (2013).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socia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1), 161-173.
- Chung, K. M., Shin, M. J., Kang, J. H., & Kim, E. S. (2013). Identification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male adolescents: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using growth modeling.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1), 177-197.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Geum, J. H., Son, C. H., Chae, S. E., & Kang, S. K. (2013).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adjustment and the relations with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 119-144.
- Hane, A. A., Cheah, C., Rubin, K. H., & Fox, N. A. (2008). The role of maternal behavior in the relation between shyness and social reticence in early childhood and social withdrawal in middl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7*(4), 795-811.
- Hong, S. H. (2013).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S & M Research Group.
- Hu, L. 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Huh, M. Y.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H. S. (1991).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o mother and school life adjustmen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s optim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Jo, H. Y., & Park, S. Y. (2013). The role of fathers' experienced parent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predicting fathering attitudes to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3), 59-74.
- Keum, J. H., Son, C. H., Chae, S. E., & Kang, S. K. (2013).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adjustment, and the relations with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 119-144.

- Kline, P. (2000).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2nd ed.). London: Routledge.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im, C. K., Cho, M. K., Choi, M. S., & Kim, J. H. (2013).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adjustment and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The Journal of Play and Therapy, 17*(1), 1-15.
- Kim, C. K., Cho, M. K., Choi, M. S., & Kim, J. H. (2013).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adjustment and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The Journal of Play and Therapy, 17*(1), 1-15.
- Kim, E. K. (2009). The effect of abused experience on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locus of control and empathic 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37-56.
- Kim, J. B. (2009).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to teenagers' maladjustment at school life: The main focus on maladjustment teenager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6*(2), 25-48.
- Kim, J. W., & Kim, H. M. (2007).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1*(3), 361-387.
- Kim, M. J., & Yeum, D. M. (2012). A meta-analysis for how the child abuse experience effect on the child's school adapta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3*, 409-430.
- Kim, N. Y. (2012). Influence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on problem behaviors of adolescence: With social support as a moderating variab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H. (2013, October, 16). 66% out of total school-quitting adolescents are high school students. The Kukmin daily, Retrieved November. 22, 2013, from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659180&cp=nv>
- Kim, S. H., & Kim, K. Y. (1998).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4), 155-166.
- Kim, S. W.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R., & Cheon, M. S. (2003). Relationship analyses between adolescents' ego-identity and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4), 511-541.
- Lee, K. E., & Ha, E. H. (2011). A test of a vulnerability-stress model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t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1*(2), 39-57.
- Lee, K. O., & Lee, M. R. (2013). Effects of personal, family and school variables on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3*(1), 13-28.
- Lee, T. J., & Kwon, J. H. (2007). A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bused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2), 377-389.
- Nelson, L. J., Rubin, K. H., & Fox, N. A. (2005).

- Social withdrawal observed peer acceptance and the development of self-perceptions in children ages 4 to 7 yea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 185-200.
- Oh, W., Rubin, K. H., Bowker, J. C., Booth-LaForce, C., Rose-Krasnor, L., & Laursen, B. (2008).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553-566.
- Park, K. I., Chung, S. W., & Shin, A. N. (2013). Exploratory profile analysis regarding parenting styles: With a special focus on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Studies on Korean Youth*, 24(2), 91-118.
- Park, M. S., & Yoo, K. H. (2013). The relationship among the child's stress, ego-resilience and school life adaptation. *Journal of Living Science Research*, 39, 39-68.
- Rubin, K. H. & Burgess, K. B. (2001). Social withdrawal. In M. Vasey & M. Dadds (Eds.),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pp. 407-43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ubin, K. H., & Coplan, R. J. (2004).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0(4), 506-534.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2.
- Rubin, K. H., Stewart, S. L., & Coplan, R. J. (1995).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Conceptu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In H. Ollendick & R. Prinz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pp. 157-196). New York: Plenum Press.
- Seo, J. A., Cho, H. S., Chang, J. H., & Lee, J. Y. (2012).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youth's adaptation to school: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mil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ung, S. O., Park, M. D., & Kim, Y. H. (2013).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correlation between school stress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8), 49-70.
- Werner, E. E. (1989). High-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 Yoo, S. K., & Shim, H. W.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2013년 10월 31일 투고, 2014년 1월 18일 수정
2014년 1월 27일 채택